



“긴여름 보내고 겨울을 맞아”

# 特效藥을 過信, 淡水魚·山돼지고기 生食 올겨울 6번째 狩獵場서 죽을 野生動物들…

吳 判 龍

## (一) 지난 여름

◎…지난 6월초의 일이다. 모 TV 전국순회프로의 한 장면… 낙동강에서 회귀한 담수어(淡水魚)라는 소개 끝에 선상에서 고추장에 찍어 이 민물고기의 生食장면을 비추면서 취재간간 사람까지 한몫긴 장면이 방영되었다. 아마 민물고기 生食을 주저해온 사람은 욕심이 났을 것이고 평소 대수롭지 않게 健康食이라고 幼兒에게도 먹이고 자신도 生食해온 분은 입에 침이 돌았을 것이다.

나는 이 어리둥절한 사실을 그냥 덮어둘 수가 없었다. 바로 그날 장문의 질의와 오래동안 끓긴 안부를 담은 글을 디스토마虫 전문학자 慶北大醫大寄生虫學 교실 崔東翊교수에게 보냈다.

그와의 해후는 33년전. 나는 그때 각종 기생충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당시 동교 예방의학교실 주임 교수이며 肝디스토마 연구의 권위자였던 李性寬박사의 방을 매일처럼 노크할 때였다. 3년이 지난여름, 그해는 너무나 더웠다. 당시 그 교실에서 박사과정에 있던 崔교수와 나는 낙동강변을 肝디스토마虫 감염실태조사를 위해 편력하게 된다. 교통수단이 형편없고 경제사정이 피차 어려운 시기였다.

세계적으로 肝디스토마虫 서식률이 가장 심하다는 부끄러운 江이 바로 洛東江이다. 각처의 국민학교학생들과 주민의 감염조사, 그 당시 반응조사에는 약 80%가 虫의 量은 다르지만 肝디스토마 保虫者였다. 노인들은 「거울같이 맑은 물인데 무슨 벌레가 있느냐?」고 대들기도 하고 보라는듯 강가에서 회를 쳐서 탁주파티를 벌리는 판국.

그때는 산업공해가 없어 洛東江이나 琴湖江의 물은 정말 맑았다. 『피리 몇마리를 고추장에 찍어먹은 일 밖에 없다』는 50대의 농부. 그는 「황달에 걸려 八公山약물로 한동안 회복되더니 악화되어간다」고 변명한다. 肝디스토마 환자인줄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을 마을사람은 浮腫, 黃疸, 黑疸病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 후와틴, 에메틴, 안티몬 등 몇가지 약이 있었으나 농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

았고 병원에서도 부작용이 나고 중독작용 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였다.

내가 잘 아는 분이나 민물고기 회를 좋아한 당시 D일보 문화부장 L형 그리고 이모부와 중형이 肝디스토마로 영양실조가 되더니 결국은 모두 타계했다. 그때 나는 江邊의 그러한 충격적인 사실과 疫學的으로 구제불능인 이 병을 예방하는 길은 더이상 민물고기 생식을 못하게 계몽(虫의 生命이 20~25년이란 학설)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여 제2세만이라도 淡水魚生食을 않도록 바라고 또 학동을 통한 가족계몽 효과를 노려 「洛東江의 肝디스토마」란 제목으로 40회에 걸쳐 D일보 사회면에 연재했다. 그로부터 30년… 이제 崔교수와 나는 다같이 60대이다.

그는 내가 알고자한 肝디스토마虫 特效藥이 나온 후의 궁금했던 질문에 읽기 좋도록 타이핑해서 다음과 같은 회답과 함께 그가 발표한 논문까지 보내주었다.

① 肝吸虫(肝디스토마)예방법의 원칙은 특효약이 나온 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간흡충에 감염되어 상처를 입은 담도(肝)는 특효약으로 구충하여도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② 한국을 위시하여 중공, 자유중국 등에서 간흡충의 감염예방이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같은 회답을 받고 나는 6월 중순경 민물고기생식장면 방영 TV사에 건의서를 보냈다. 다시는 그와같은 장면을 방영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런 장면을 포착하면 민물고기생식의 무서움을 일깨워주는 계몽의 장면으로 바뀌달라고.

崔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1980년에 나온 肝吸虫症 치료제 가운데 가장 치료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는 Praziquantel 약효를 過信한 나머지 담수어를 생식하는 경향이 있어 肝吸虫症의 豫防에 逆行하고 있다. 現在 100% 치료효과가 있는 약제는 없으며 慢性肝吸虫症환자의 약 10%에서 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原發性肝癌이 생기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하나 特記해야 할 것은 肝吸虫의 경우나 肺吸虫의 발육에 있어 第1中間宿主는 모두 민물 貝類(쇠우렁)이지만 第2中間宿主는 肝吸虫에선 민물고기, 肺吸虫에서는 민물가재(산가재) 및 민물게(방게·논게)이며 終宿主는 똑같이 사람을 위시한 각종 哺乳 동물.

그는 肺디스토마의 豫防策으로서 肺吸虫의 第2中間宿主인 민물가재나 게의 생식과 어린이의 홍역(紅疫)때 가재의 生汁을 먹이지 않도록 지적했다. 「최근 산돼지를 건장식품 또는 별미로 賞食하는 유한남녀들이 늘고있는데 肺吸虫 被囊幼虫(매타세루카리아)이 기생하고 있는 가재를 생식한 산돼지의 근육 내에는 脫囊한 유충이 머물고 있어 이를 불충분하게 조리하여 먹으면 감염하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江山이 세번 바뀐 30년이 지나도 放心못할 惡毒虫.

## (二) 울겨울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동안 6번째 순환엽장이 되는 全北道에 전국의 유·무명포수들이 물리게 된다.

작년 겨울은 慶北道가 순환엽장이었다.

경북도의 경우를 보도한 대구매일신문통계에 의하면 경북도에 수렵승인을 받은 엽사는 3천7백17명, 수렵장 사용료는 12억1백77만원, 포획신고된 동물별 숫자는 스고라니(사슴과 동물) 111마리 스맷돼지 76마리 스토끼 440마리 스평(장끼) 2,534마리 스맷비둘기 1,001마리 스까마귀 459마리 스오리 957마리 스참새 2,097마리등 총 7,675마리였다. 수렵승인을

받은 사냥꾼은 3,717명이지만 주말이 되면 전국에서 2천5백 내지 3천여명이 몰려오므로 연인원은 4~5만 명이 경북西北부 일대(주원 사냥터는 聞慶·義城·安東·醴泉·軍威·星州郡등)를 누빈 셈. 奉化·蔚珍·英陽·迎日군등 太白줄기로 이어진 東北부의 깊은 산속은 거의 외면했다. 포획신고된 수는 전기한 숫자지만 신고안된 숫자까지도 포함하면 1만마리가 넘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도 인용되어 주목을 끌었다.

두더러진 문제는 사냥꾼들의 총기誤發事故. 엽장 사용료가 12억원이나 되고 사냥꾼의 행선지가 사전에 파악되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 대민홍보를 할 수 있는 것. 山林廳은 각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각도는 시·군에다 위임하는 것이 관례인지라 현지 말단행정의 취약성에 귀결한다.

山林廳의 보호담당관계자는 순환엽장이 개장되기 전에 해당지역의 야생조수 실태조사(서식밀도·분포)를 하며 조수별 일간포획량을 정해서 시달, 남획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수렵대상동물만 잡게 돼 있다고 강조. 규정은 본인이 엽장설정자(도·시·군)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작년의 경우도 실제포획량은 신고량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으니 포획종별 동물도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작년 겨울 慶北에 몰린 포수들을 피해 피난간 동물들이 울어대어 인접한 忠北 산간부락민은 밤마다 무서워 떨고있다는 현지 신문기사가 연상된다. 꼭 이런 방식으로 도살해야만 하는 것인지. 야생동물보호의 구호가 허공에 뜨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세심한 감독과 만에 하나 국립공원등 자연공원에서 귀중한 천연기념물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해둔다.

[本會 事務局長]

## 500字知識

### 心理的 收容力(Psychological Carrying Capacity)

심리적 수용력은 「휴양경험의 질적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양利用을 最大로 할 수 있는 利用水準」으로 심리적 요인(분위기, 경험, 기대등) 및 단체의 활동, 휴양기회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休養의 심리적 만족은 自然환경의 질적 변화에 대한 利用者의 지각, 혼잡성에 대한 느낌, 다른 이용자와의 상호관계(적정거리등), 利用시간, 遭遇(Encounters) 분포등의 영향에 따라 만족 수준도 다르게 나타나 수용력을 단순한 利用者 수에 대한 함수 관계

로 나타낼 수 없어 수용력을 관리목표에 기준한 의사결정의 개념도 받아 들여야 하며 주위환경 질의 향상, 편익시설보완 등으로 자원의 질을 높이고 利用者간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적정분산 배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收容力을 높여야 하겠다.

한편 수용력의 권위자 George H. Stankey(1985. 9)는 最大收容能力分析에서 ① Ecological capacity ② Physical capacity ③ Facility Capacity ④ Social Capacity의 4가지 Impact로 분류하기도 했다.

<變>